

人工造林과 天然更新

山林廳 造林課 造林二係長 沈 同 魯

우리나라의 計劃的인 人工造林의 歷史는 1907年 養苗를 위한 國營固定苗圃가 設置되면서 始作되었다고 알고 있다. 樹種은 赤松을 비롯하여 黑松, 잎갈나무, 아까시를 養苗하여 主로 貸付林, 部分林, 學校林과 道 및 面模範林에 配付造林을 하고 一般私有林에는 申請에 의한 無償分配造林을 勸獎하였으나 그成果는 별로 좋지 않은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韓日合併以後 10餘年間 繼續된 分配造林의 矛盾을 是正하기 위하여 取해진 措置가 “補助造林”으로서 1925년부터 30年間의 造林計劃을 樹立하고 “道補助造林規程”을 道令으로 制定하는 한편 面別로 林野基本調査를 實施 하였다.

補助造林은 小規模私有林을 對象으로 國費 50%, 道費 50% 負擔에 의거 苗木을 現物補助 하였으나 그成果 또한 低調하였다고 한다.

解放과 더불어 우리山林은 破壞되었고 雪上加霜으로 6·25動亂은 山林을 무자비하게 荒廢시켰다.

美軍政時代나 政府樹立後에도 荒廢山林의 復舊를 위한 造林은 繼續되었고 한때는 外援機構인 UNKRA와 ICA의 援助까지 받아 造林을 하였다.

그러나 政局이나 社會가 比較的 安定된 狀態에서 計劃性 있게 造林이 推進되기 始作한 것은 5·16革命 以後라고 하겠다.

政府의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된 1962년부터 山林事業部門도 同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하게 되었고 그당시 造林은 山林被害가 炊事와 暖房用 燃料採取에 基因됨에 着眼하여 林

産燃料를 解決하기 위한 燃料林造成에 重點을 두었다. 主樹種은 萌芽力이 強한 아까시,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로서 部落山林契를 통한 代執行方法으로 植栽 되었다.

한편 이태리 포플러를 勸獎植栽하기 始作한 것도 이때 인 것이다.

1967年 山林廳이 發足한 해는 政府의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出發年度이기도 하다. 同計劃에 包含된 造林事業은 亦是 燃料林造成에 比重을 두어 推進하였고 農特事業의 一環으로 特用有實樹를 植栽하게 되어 改良種 밤나무 接木苗를 養苗供給하고, 林木育種研究所에서 開發한 은수원사시나무를 全國에 普及 植栽한것이 特記할 事項일 것이다.

그후 1970年代初는 우리나라 林政의 轉機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併行하여 山林事業의 綜合計劃이 樹立되어 長期的인 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具現하기 위한 細部的인 施策이 마련 되었기 때문이며 第1次 治山綠化 10年計劃이 그것이다.

同計劃上 造林事業은 基本目標를 “山地的 速成綠化”에 두고 計劃期間인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年동안 經濟造林으로 所得增大를 위한 밤나무 300千헥타, 速成造林으로 포플러類 300千헥타와 燃料林 205千헥타 그리고 長期樹는 195千헥타를 計劃하여 速成樹對 長期樹의 植栽本數比率을 7對3으로하여 總1,000千헥타를 汎國民運動에 의한 國民造林으로 推進하여 山地上에 綠色革命을 이룩한다는 것이 骨幹이었다.

이와같은 計劃은 政府의 強力한 推進과 國民의 獻身的參與에 힘입어 目標年度보다 4年을 앞당겨 1978年까지 總 1,080千헥타에 2,960百萬本の 植栽을 完了하였는바 造林史上 量的으로 가장 人工造林을 많이한 期間일 것이다.

1967年度에는 454,779헥타에 1,638百萬本을 植栽하여 年間造林量으로는 最高의 記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日政時에 始作된 人工造林은 解放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每年 繼續되어 온 것이다.

물론 그간에 播種造林을 試圖해 보기도 했고 一部 萌芽更新 그리고 國有林에서 小規模이기는 하나 天然下種更新事業을 한적은 있으나 大面積 收穫伐採에 따른 跡地造林이나 病害蟲被害地 또는 惡松·雜木林의 大面積 樹種更新 人工造林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一般國民들은 물론이고 山林公務員까지도 造林이라는 것은 既存木을 伐採하고 그자리에 養苗를한 苗木을 植栽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것이 아닌가 生覺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生覺해 보면 그당시 우리의 山林事情으로 보아 荒廢山地의 早期復舊 및 綠化를 위해서는 不可避 하였고 또 그結果 우리山林은 눈에 보이게 푸르러 졌고 林相構造도 많이 改善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一角에서 얘기하는 “苗木生産者를 위한 造林計劃이나?”는 말은 그동안 이룩한 成果에 비추어 새겨 볼때에 씁쓰름한 맛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山林事情은 많이 달라 졌고 또한 山林經營을 위한 與件變動이 심해 졌다.

따라서 1979年부터 始作된 第2次 治山綠化 10年計劃은 基本目標을 “山地資源化”에 設定하고 產業用材의 自給度 提高를 위한 林產資源造成에 置重 하고 있다.

當初에 總 1,500千헥타의 造林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하던중 林外 포플러造林適地の 限定과 함께 大面積 樹種更新에 따른 問題點, 農村人力 難과 勞賃上昇, 濶葉樹資源保存의 必要性等 與件變

動으로 因해 1981年에 第2次 治山綠化 10年計劃上 造林計劃量을 當初 人工造林 1,500千헥타에서 植栽造林 1,100千헥타, 天然林保育 400千헥타 都合 1,500千헥타로 1次調整을 하였고

올해에 다시 2次調整을 하였는바 그 內容은 下向式量的造林에서 上向式質的造林으로 推進한다는 基本方向에서 總造林計劃中 1984年 부터 1988年까지 下半年 5個年物量을 減縮하여 總造林計劃量을 植栽造林 997千헥타, 天然林保育 151千헥타 都合 1,148千헥타로 調整 하였다.

특히 短期所得이 있고 造林 및 管理技術이 定着된 밤나무는 年間 2千헥타 規模로 造林하되 國庫補助對象에서 除外하여 自力造林 또는 山林開發基金에 의한 融資造林으로 轉換하고, 速成樹造林中 오동나무는 政府計劃造林에 包含하지 않고 希望山主의 任意造林토록 하는 한편 포플러類는 過去에 年間 約 60千헥타 規模를 今後에는 年間 11千헥타 規模로 大幅減縮하여 希望者 위주로 責任植栽 및 事後管理토록 하며 長期樹는 全國 80個 經濟林團地에 集中造成하고, 特殊造林을 反映 하였으며 樹種更新은 選擇的으로 嚴選하고 優良天然林의 保育을 併行推進 해 나갈 計劃인 것이다.

以上과 같은 政策轉換을 契機로 하여 解放以後 現在까지의 造林을 해온 過程을 돌이켜 볼때 몇 가지를 느끼게 된다. 그중 한가지가 人工造林 위주의 造林方式 이다.

첫째로 環境條件에 큰 영향을 받는 林木은 大面積皆伐 보다는 單木擇伐 또는 群狀·帶狀皆伐이, 一齊單純林보다는 混淆林이 바람직 하다는 다시 말해서 生態的林業經營이 되어야 한다는 事實에 비추어 生覺할때에 一時 大面積 收穫伐採와 果敢한 樹種更新에 따른 量的인 植栽造林으로 因해 生育環境을 人工的으로 惡化시키는 結果가 되고 한편으로는 育林管理의 未洽으로 萌芽更新을 한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 왔고 파생적으로 有用 濶葉樹資源의 保存策이 抬頭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로 林業도 收益性이 낮은 土地生産業으로

서 經濟性을 重要視 하지 않을 수 없는바 山主가 參與하지 않고 山林契 代執行에 의한 造林成果를 얼마나 期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山地資源化”라는 大命題를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先進的인 山林經營을 하여야 하고, 170餘萬의 私有林所有者가 山林經營에 關心을 기울이며 投資意慾을 갖고 參與케 함으로써 活性化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山地利用區分調査와 함께 山林經營計劃制度가 定着되어야 하고 造林에 있어서도 適地適樹를 위한 精密山林土壤調査結果에 依한 科學的인 人工造林과 아울러 有用闊葉樹의 萌芽更新, 針葉樹의 天然下種更新, 既存 形質優良 天然林保育等 當該 林地의 特性을 考慮한 綜合的인 經營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본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技術的인 內

容은 定立이 되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의 林業經營이 그와같은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分明히 알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나라 山林形態에 適合한 技術을 開發하고 漸次 補完定着 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一時 大面積皆伐에 의한 人工造林에서 選擇的인 樹種更新造林으로 轉換하여 天然更新을 併行해 나가자고 하는것이 筆者의 主張인 것이다.

針葉樹人工造林만이 經濟林造成이 아니고 반드시 經濟性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 特히 最近에 重要視하는 山林의 休養的 價値面에서 볼때에도 針葉樹一齊林造成만이 바람직 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끝 >